

“장기미제사건 5000건...인력충원 급하다”

■ 광주고검·지검

“검사 1인당 하루 사건 8.7건”

野 “선거법 위반 수사 미온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사 과중 업무로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충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 장제원·이은재·주광덕 의원 등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중심으로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광주지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병대 출신으로 2살 이하의 아버지가도 한 30대 중반 이상은 검사 가 밤늦게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엘리베이터에서 금성삼금경색으로 사망했다”면서 “이 검사가 속해있던 형사3부는 지역 내 주요 형사사건을 도맡고 있었지만 정원은 겨우 8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명은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며 검사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대전고검, 광주·대전·청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박군택 광주고검장이 증인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강도 높은 근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다. 광주도 5000건이 넘는다”며 “민생 침해사범 등을 빠른 기간 내에 엄단해 서민이 재산적 손해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형사부 검사의 인력부족이 사건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지검의 올해 1-7월 미제사건은 5284건으로 관련 대상자만 1만 226명에 이른다. 검사 1인당 1일 사건처리 건수도 광주지검은 지난해 기준 8.7건으로 전국 평균인 8건보다 0.7건이 많다. 지난해 2016년에는 9.7건이나 됐다. 이 때문에 광주지검은 물론 지역사회 안팎에선 수년째

현재 1명인 차장검사 정원을 2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검사 1인당 할당 평균 2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건 철인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파트값 부추기는 투기세력 근절해 달라”

■ 광주국세청·한은 광주전남본부

“광산구 인구 곧 50만 될 것

광산세무서 신설 왜 안되는가”

23일 진행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유독 광주 봉선동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며 “원인을 분석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 정착돼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서 면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인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강도 조사를 통해 세금탈루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렸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해 대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세금 탈루와 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서광주세무서를 분서(分署)해 광산세무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빛그린산단과 선운-하남지구, 광주송정역 개발권 등이 있는 광산구

는 앞으로 계속 인구 유입이 이뤄져 곧 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로 비슷한 규모인 경기도 고양세무서가 최근 개설됐는데 광산세무서 신설은 왜 안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광산구 주민도 광산지사를 세무서로 독립시켜달라는 민원을 받았다”며 “중앙정부가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형환 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에 대한 요청을 수차례 했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국감 인물

아내 잃은 슬픔 딛고 특유의 송곳 질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목포시)이 부인을 잃은 슬픔을 딛고 특유의 날카로운 송곳질문으로 국감장을 숙연하게 했다.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지법과 가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를 언급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역사의 현장에서 광주의 법정에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본 국민 대부분은 5·18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에 울분을 터트리지만, 극히 일부는 아직도 5·18은 북한에서 보낸 폭도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을 반드시 광주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광주·지법법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윤행 합평군수 판



결 등 지역 내 관심사건에 대해서도 역설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리해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5일 아내 이선자씨가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자 미안함과 그리운 마음을 담아 “오늘(12일) 과천 법무부에서 밤늦게까지 국감하고 마지막 KTX나 고속버스로 금귀월래(金歸月來·금요일에 지역구 목포로 갔다가 월요일에 상경한다는 뜻)할게.” 내” 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가벼운 미소, 아내와 나는 대화가 마지막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의원은 이후 지난해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임종하기까지 308일간 매일 병원에 들러 아내에게 저녁을 직접 떠먹여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근혜 정부 한은 금리인하 압박 밝혀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열린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치닫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활약이 눈부시다는 평이다.

박 의원은 이전 법제사법위에서 기획재정위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주요 감사 대상인 경제기관을 상대로 철저한 준비와 치밀하고 노련한 질문으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등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23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부동산 급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그는 지역 상황을 면밀히 조사,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오름세를 사례로 드는 등 다른 의원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보였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4년 금리인하 당시 안중범 경제수석이 수첩에 여러차례 관련 내용을 적어둔 것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언론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는 “이 총재가 한은의 독립성과 권



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버텨야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18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꾸미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된 2015년 11월 29일보다 9일 앞선 20일 안중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이미 평가 결과 점수를 적어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6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일게 된 확정 손실만 2조원이 넘는다. 누군가의 압박으로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계속 국민 세금을 투입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의혹을 제기,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으로 부터 이전 대통령과 성동조선 비리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711100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70~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천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